

# 과테말라 내전 원주민 학살의 전개와 배경\*

노용석  
(부산외국어대학교)

## 1. 들어가며

2013년 3월 19일, 과테말라의 전직 대통령이자 독재자로 일컬어지는 리오스 몬트(Efraín Ríos Montt)가 1980년대 마야 원주민을 집단 학살한 혐의로 과테말라 법정에 섰다. 전(前) 국가 지도자가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아닌 자국 법정에 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리오스 몬트는 이 법정에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사망자 1,771명, 강제이동 2만 9천명, 여성 8명에 대한 성적 학대와 고문 등 적어도 14개의 범죄에 대한 교사자(intellectual author)로 기소되었다. 이후 2013년 5월 10일, 과테말라 법정은 리오스 몬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0년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집단 학살 혐의가 있는 전직 지도자를 자국 법정에서 단죄했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5월 21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리오스 몬트에 대한 재판부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4월 17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리오스 몬트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변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리오스 몬트에 대한 유죄 판결은 무효화 되었고, 재판은 2015년이 되어야 재개될 것으로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보인다.

리오스 몬트가 이 재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대통령 집권 당시 발생한 집단 학살과 인권 유린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 학살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마야 원주민들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많은 논문과 보고서, 언론보도에서는 과테말라 내전을 마야 원주민을 집단 학살한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리오스 몬트는 이 범죄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다.

하지만 제노사이드는 개념 규정에 있어서 보편적인 집단 학살(massacre)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sup> 설령 다수의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되었더라도, 이 행위의 근본적 배경과 목적이 한 종족에 대한 절멸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제노사이드와 집단학살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듯 제노사이드와 집단 학살을 구분하는 것은 좀 더 의도적인 반인륜적 범죄를 밝혀내고 해당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함이며, 주로 국제전범재판이나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과테말라 내전 당시 마야 원주민 학살의 세부적인 배경을 제노사이드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 제노사이드의 배경을 밝히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범죄 구성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면, 제노사이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맥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다면, 해당 사회의 종족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통해 행위의 목적이 제노사이드와 연관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노사이드와 연관한 가해자의 절멸 의도가 어떻게

---

1) 일반적으로 제노사이드는 전쟁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학살(massacre)과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제노사이드를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대규모 학살이 사용될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노사이드에 대한 개념 정립을 추구해 온 쿠퍼(Leo Kuper 1981)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함부르크 등지에 실시되었던 공중폭격이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에서 체결된 제노사이드 협정에 포함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쿠퍼는 현대의 전면전(total war)에서 적군이 어떤 도시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적군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럴 경우 무작위 대중에 대한 살상의 의도가 제노사이드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

발현되었는가를 당시 군사작전 기록 등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와 관련하여 당시 가해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내용, 그리고 고의성을 내재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기록들은 과테말라 내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리오스 몬트 정부를 전후한 시기의 문서들이 중심이 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보편적 개념으로서 제노사이드의 의미를 간단히 고찰하고, 제3장에서 과테말라 사회 내에서 마야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내전 기간 중 발생한 폭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1982년부터 실시된 과테말라 군부의 대계릴라 전술을 소개하면서, 이 속에 포함된 제노사이드적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과테말라의 제노사이드가 여타의 사례와 달리 사회문화적 융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리오스 몬트 정권부터 실시된 모델 빌리지(Model village)와 민병대의 구성을 설명하면서 과테말라 제노사이드의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 II. 제노사이드 개념 정의

2013년 12월, 전 세계는 남수단(Republic of South Sudan)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종 학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남수단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덩카족(the Dinka)과 누어족(the Nuer) 사이의 분쟁이 악화되어, 12월 사이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남수단 사태가 1994년 약 백 만 명의 인종 학살 피해자를 양산한 르완다(Rwanda) 사례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어 놓았다. 이처럼 인류는 포에니 전쟁 당시 카르타고인에 대한 로마인의 학살과 1492년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19세기 북미에서 행해진 인디언 학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와 난징 학살, 1975-1979년 사이 발생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1987년 이라크의 쿠르드족(the Kurd) 학살, 1998년 코소보 사태, 동티모르 사태 등 현재까지 끊임없는 제노사이드를 경험하고 있다(Chalk & Jonassohn 1990).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 특정 인종 혹은 종족(ethnic group)을 절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노사이드는 비단 사례의 참혹성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재고할 많은 요소를 안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중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살인 행위를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특징 혹은 문화적 현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인류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는 1944년 유대인 학자 라파엘 램킨(Raphael Lemkin 1944)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고, 이후 이 정의를 바탕으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대한 협정’(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 of Genocide)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에서 확인된 제노사이드의 정의는 ‘민족이나 국가(national), 종족(ethnic), 인종(racial), 종교(religious)집단의 일부 혹은 전체를 파괴하려는 일련의 모든 의도’들을 일컫는다. 유엔협정에서 이 의도들은 a)집단 구성원의 살해, b)집단 구성원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 C)집단 내 출산을 고의적으로 막기 위한 행동들, d)집단의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보내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Shaw 2003: 34).

이후 학자들은 제노사이드를 램킨과 유엔협정의 정의를 넘어서 20세기 후반 인류문화의 특수현상으로 보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쿠퍼(Leo Kuper)는 근대사회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가해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첫째 종교와 인종(racial), 종족(ethni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인, 둘째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된 식민지 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요인, 셋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시행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Kuper 1981: 11-18). 이에 근거하여 초크(Frank Chalk)는 유형분류학적으로 제노사이드를 모두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실제 혹은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유형, 실제 혹은 잠재적 적 사이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유형, 적의 부(wealth)를 획득하기 위한 유형, 신념과 이론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형 등이다. 이중 대략적으로 볼 때 앞의 세 가지 유형은 주로 고대로부터 시작된 거대 제국(empire)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Chalk & Jonassohn 1990: 29-32). 즉 특정 집단이 주변의 실제 혹은 잠재

적 적을 절멸하여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근대국민국가가 보편화되면서 이와 같은 유형의 제노사이드는 거의 목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세기 이후부터는 이보다 신념과 이론, 이데올로기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노사이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역시 20세기 이후부터는 급격히 서로 다른 집단에 존재하기보다는 한 집단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20세기 이후 제노사이드는 종족적 대결을 통한 상대방의 절멸에 근원한다기보다는 특정 근대국민국가가 이데올로기 및 신념을 강요하기 위해 자국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위 제노사이드의 분류 및 정의를 통해 볼 때,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제노사이드는 근대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야 원주민을 학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의 구체적인 과정을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 III. 과테말라 내전과 마야 원주민의 정체성

#### 1. 과테말라 내전 약사

과테말라는 1821년 독립이후 계속적으로 근대국민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군사)독재정치와 큰 빈부격차, 사회의 불평등 구조, 외세 의존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정치경제 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냉전 시기 미국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잡았던 ‘전통적 지배층’과 마야 원주민 및 다수의 라디노(ladino)로 구성된 ‘피지배층’ 간의 갈등은 36년 간의 내전으로 발전하여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특히 반정부 세력이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nion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이하 URNG)이라는 무장계렬라 조직을 결성한 1982년부터는 내전이 본격화되어 수많은 사상자와 이주민을 낳게 되었다.

과테말라 내전의 최고점은 1978년부터였다. 1978년 대통령에 즉위한 군부

출신의 가르시아(Lucas García)는 과테말라 역사상 최고의 독재정치를 펼쳤으며, 동시에 야당정치인 및 학생운동 지도자, 노조간부 등이 비밀 암살조직(death squad)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sup>2)</sup> 이에 과테말라 국내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고, 1982년에는 가르시아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는데, 이때 집권한 이가 리오스 몬트였다.

리오스 몬트는 전임 군부정권과는 좀 더 색다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82년 당시 과테말라가 처한 몇 가지 위기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과테말라는 정치적으로 서부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무장 게릴라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외곽지역의 치안과 정치상황이 상당히 혼란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1981년부터 1982년까지 급속도로 하락한 과테말라의 경제는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Booth etc 2010: 142). 이렇듯 불안정과 위기 속에 뒤덮인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리오스 몬트는 전임 군부정권들이 사용하였던 억압정책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억압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1965년 제정된 헌법을 폐기하고 의회를 해산하였으며 선거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정당 들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이어갔다. 특히 산간지대에 마야 원주민과 밀착되어 있던 무장 게릴라 집단을 토벌하기 위해 각종 군사작전을 시행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과테말라 민중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폭력과 내전이 결합되어 있던 이 시기(1978년부터 1982년까지)를 ‘라 비올렌시아(La Violencia)’로 기억하고 있다. 인류학자 샌포드는(Victoria Sanford) 과테말라 정부군의 폭력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였던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바하 베라파스(Baja Verapaz), 알따 베라파스(Alta Verapaz), 엘끼체(El Quiché) 주 등지의 산간지대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폭력의 시기를 라 비올렌시아로 명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 비올렌시아를 정의하는 시기는 그 대상과 주체의 범주에 따라 각기 다르게 평가 되는데, 먼저 과테말라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은 라 비올렌시아 기간을 가르시아와 리오스 몬트 정권이 폭압적 탄압을 하던 1978년부터

2) 과테말라의 정치적 살인(political murder) 비율은 1971년에 1개월에 30건이던 것이 1979년에 75건, 1982년에 30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Booth etc 2010: 142).

198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명실상부하게 과테말라 정부군의 민중에 대한 탄압이 가장 극심하게 작용하던 시기였다. 또 다른 이들은 리오스 몬트 정권 이후 집권한 빅토레스 정권(Oscar Humberto Mejia Victores)에서도 상당수의 인권침해 요소들이 발생하였으므로 라 비올렌시아 시기를 빅토레스 정권이 집권하던 1985년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선별적이고 간헐적이었지만 과테말라 산간지대에 공습이 지속되었던 1990년까지를 라 비올렌시아로 보는 입장과, 평화협정이 완전히 체결되는 1996년까지를 라 비올렌시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Sanford 2003: 14-17).

과테말라는 1996년 정부와 민족혁명연합(URNG)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고, 이후 향후 국가발전을 위한 체제 개선안과 내전 기간 중 발생했던 국가폭력을 조사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보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진실위원회, truth commission)를 구성하여 내전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과거청산을 실시한 것이었다. 1996년 12월 과테말라는 ‘역사진실규명위원회’(Comision para de Esclarecimiento Historico: 이하 CEH)로 명명된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여 34년 내전 기간 동안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18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1999년 2월 ‘침묵의 기억’(Guatemala: Memoria del Silencio)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재까지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볼 때 과테말라의 라 비올렌시아 기간 동안 440개 마을이 과테말라 군에 의해 불태워 없어져 500,000명의 집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150,000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100,000명에서 150,000명 사이의 인구가 죽거나 실종되었다. 또한 CEH는 626개 마을에서 약 200,000명에 이르는 인구가 학살되었는데 이중 약 83%는 마야족이었고, 학살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과테말라 정부군에게 93%의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CEH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과테말라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마야 원주민이었다. 최종보고서가 제출 이후 화해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은 본격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 2.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의 지위와 정체성

과테말라의 과거청산은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다. 중미의 인접국인 엘살바도르와 같이, 과테말라는 냉전 시대가 붕괴된 이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과거청산을 이용한 면이 상당히 크다. 즉 과거청산을 위한 명확한 이행시점(transition point)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군과 게릴라 간의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끝내기 위하여 국제사회(유엔 등)의 도움을 빌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상징’으로 과거청산을 시도한 것이다. 36년간의 내전은 과테말라 내 수많은 불신을 양산하였고, 이에 대한 청산 없이 발전된 민주국가를 이룰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과거청산 대상 중 중요하게 간주된 것은 원주민 문제였다. CEH는 1999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다양한 형태의 권고사항을 포함시켰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의 내용이 마야 원주민과 관련된 것이었다. CEH는 마야 원주민과 관련하여 상이한 문화의 상호존중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문서 및 보고서의 마야 언어로의 번역, 평화와 문화 상호존중에 대한 교육,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차별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처럼 과테말라 과거청산에서 원주민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된 것은 내전 기간 중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원주민 인권 침해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테말라에서 위와 같은 원주민에 대한 차별정책과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서구 유럽에 의해 식민지화 되어 갔던 라틴아메리카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을 제외한 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테말라는 고대로부터 찬란한 마야 문명이 기원한 지역이다. 하지만 유럽에 의해 신대륙의 정벌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고대문명이었던 아스텍(Aztec) 및 잉카(Inca) 문명과 같이, 마야 문명의 원주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엘만 서비스(Elman Service)에 의하면, 과테말라가 위치한 중미 지역은 고대로부터 남아메리카 대륙중부에 위치한 안데스 고지대와 함께 복잡한 국가조직을 가진 수준 높은 문화적 발달을 이룬 곳이었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인종적 혼합(mestizo)과 스페인 지배계급이 도래한 이후에도 지역공동체와 가족제도를 강하게 지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한 지역 공동체들은 원주민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으며, 많은 토착적 혹은 민족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풍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젠 니퍼스, 중남미지역원 번역팀 2012: 67-68)<sup>3)</sup>. 즉 마야문명은 유럽의 신대륙 정벌 이후 핵심 문화코드를 상실하였지만, 적어도 과테말라와 같은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마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소위 ‘인도-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인구(2000년 기준)<sup>4)</sup>

	국가	총인구	원주민 인구	원주민 비율
유로-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44,529,000	511,870	1.1
아프로-아메리카	브라질	138,914,000	96,780	0.1
	기아나	1,324,000	80,286	6.1
	콜롬비아	7,095,000	306,700	4.3
메스티소-아메리카	멕시코	39,501,629	415,518	0.1
	베네수엘라	23,900,000	382,400	1.6
	파라과이	5,206,101	85,674	1.6
	칠레	15,116,435	453,500	3.0
인디오-아메리카	벨리스	232,111	24,501	10.6
	<b>과테말라</b>	<b>9,133,000</b>	<b>4,000,000</b>	<b>43.8</b>
	에콰도르	10,508,000	3,111,900	29.6
	페루	22,304,000	9,100,000	40.8
	볼리비아	8,274,325	4,700,000	56.8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과테말라는 라틴아메리카 여타 국가 중에서

3) 엘만 서비스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중부 안데스 고지대에서 높은 수준의 국가조직을 건설하였던 라틴아메리카 문명을 ‘인도-아메리카’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인도-아메리카 지역이 고대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현재에도 원주민 문화의 보존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4) 젠 니퍼스, 중남미지역원 번역팀(2012: 71) 참조.

도 가장 높은 원주민 인구구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테말라 내부에서 원주민에 대한 대우와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인구구성 비율처럼 높은 ‘경외감’을 가진 것은 아니다.

1821년 과테말라의 독립을 이끈 주도 세력은 원주민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 부를 획득한 크리오요(criollo) 집단이었다. 크리오요는 독립 이후 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을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근대화’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한편, 대규모 커피 경제에 동원할 ‘하층 노동력’으로 규정하였다(Grandin 2000, 최진숙 2007: 176에서 재인용). 이러한 원주민에 대한 고정화된 관념은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을 ‘야만’ 상태에서 ‘문명’ 단계로 끌어올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자국 내에 존재하는 ‘타자’(他者, the others)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과테말라의 국가 경영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마야 원주민을 하층 노동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근대국민국가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계보적으로 19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선대’(先代)로 규정할 수 있는 초기 과테말라의 지배 계급은 근대국민국가 초기부터 ‘원주민(인디오)의 야만상태를 문명화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최진숙 2007: 177). 또한 이것은 과테말라 내에서 마야 원주민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존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위와 같은 과테말라에서의 원주민에 대한 인식은 ‘라디노’(ladino)와 ‘마야원주민’의 분리라는 독특한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라디노란 과테말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스티소’의 개념으로서, ‘문화적으로 동화된 원주민(인디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Grandin 2000: 84). 과테말라에서는 식민시대부터 마야 원주민과 라디노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은 전통의복(traje)의 착용여부, 마야 언어의 사용 여부, 전통 무속 신앙의 유지 여부, 거주지 분포(고산지대 혹은 도시)의 여부 등에 의해 마야 원주민과 라디노를 구분하였다(최진숙 2005b: 148). 라디노들은 마야의 전통의상이 아닌 서구식 복장을 하고 있고, 마야 원주민 언어<sup>5)</sup>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고산지역의 시골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한

5) 과테말라에서 마야 언어는 22여 개에 달하는 종류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혜택 및 정치권력에서 제외되어 있었다(최진숙 2005a: 3).

다. 만약 마야 원주민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마야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라는 근대국민국가 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라디노로 통용될 수 있다. 많은 과테말라 엘리트들은 원주민들을 비원주민(non-indians)으로 만드는 것이 가치 있는 노력이라 믿었으며, 이것을 ‘라디노화’(ladinisation)라고 명명하였다.

이 방식은 인디오를 라디노로 만드는 것으로써, 스페인어 사용, 서구 복장의 착용, 개인재산 소유와 같은 표면적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개월에서 3개월에 이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라디노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징집을 통해 인디오들은 ‘새로운 정체성’(a new personality)을 얻을 것이라고, 한 장교는 말했다. 과테말라의 한 장교는 인디오의 징집은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적 변화의 출발일 뿐이며, 이 과정의 최종 목적은 그들의 마을에 라디노화를 계속 진행시켜 궁극적으로 인디오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지표를 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과 관련하여 한 장군은 “이것은 대장장이가 말굽을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구축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1983년에 과테말라 대통령이 된 오스카르 메히아 빅토레스(Oscar Mejía Victores)는 “우리는 반드시 원주민(indigenous)과 인디언(Indian)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하며, 우리의 목표는 모든 과테말라인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Esparza, M 2010: 82).

종합해 볼 때, 과테말라에서 마야 원주민과 라디노의 관계는 ‘야만’과 ‘문명’의 관계이자 ‘혐오’와 ‘일반’의 관계이다. 또한 과테말라 사회는 마야 문화를 라디노의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최진숙 2005a: 4). 이러한 인식은 과테말라 국가 내의 각종 문화와 언어, 담론 등에 유포되어 있으며, 원주민 차별에 대한 인식은 내전 이전부터 국가 전체 내에 뿌리 깊게 확산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과테말라는 근대국민국가 수립 이후부터 ‘마야 원주민(인디오)’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과 ‘라디노’(ladino)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마야 원주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는 과테말라 내전을 통해 전면적으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에 대한 혐오가 내전 기간 중 전면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당시 군부의 강력한 의지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테말라 지배계급의 사상은 내전 기간 중 진행된 군부의 원주민 토벌 작전계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과테말라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회적 집단들은 모두 자신들을 백인(white) 혹은 유럽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강한 인종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Duyos 2011:7).

#### IV. 진압작전의 전개로 본 과테말라 제노사이드

1982년 4월, 리오스 몬트 군사정권은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계획’(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Plan, 이하 PNSD)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군사, 행정, 법, 사회, 경제, 정치 분야 등이 포함된 ‘정부의 14가지 기본 방침’(14 fundamental points of government)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부의 쇄신과 법적 제도의 개선, 불평등의 해소, 자유시장경제의 확대, 선거제도의 개선, 이익집단들의 정치참여 확대, 국가적 화해의 증진, 각기 다른 종족(ethnic) 집단을 국가 내부로 통합한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2년 당시, 위의 기본방침들은 과테말라를 발전된 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개혁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부는 이 계획을 실제 과테말라의 질적 도약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리오스 몬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전술’로 활용할 뿐이었다. 오히려 리오스 몬트 군사정권은 PNSD 계획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있기보다, 이를 실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적’들의 제거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1982년 당시, PNSD 계획이 전 과테말라에 실시되기 위해서는 북서부 고원지대를 ‘해방구’로 장악하고 있던 반군 게릴라에 대한 소탕이 필요했다. 리오스 몬트 군사정권은 PNSD 계획을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더욱 폭력적인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번 장에서 소개할 빅토리아 82(Victoria 82)와 피르메사 83(Firmeza 83), 소피아 작전(Plan Operaciones Sofia) 계획은 바로 PNSD 계획을 수행하면서 각종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군부가 수립한 세부적인 하위 계획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계획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인

과 마야 원주민들이 학살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 1. 빅토리아 82<sup>6)</sup>

빅토리아 82는 ‘안보’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기본 바탕으로 1982년 6월부터 실시된 군사작전을 말한다. 이 계획은 리오스 몬트의 지시를 받아 로페스 푸엔테스(Héctor Mario López Fuentes)와 그라마호(Héctor Alejandro Gramajo) 장군이 고안한 것으로써, 향후 수년 간 대게릴라 진압에 관한 과테말라 군부의 기본 전략으로 작동하게 된다.

빅토리아 82 작전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당시 진행되고 있던 각종 소요사태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의 주요 섬멸 대상으로는 현재 활동 중인 혁명조직들(Organizaciones Revolucionarias Vivas: 이하 ORV)과 대규모 혁명조직들(Organizaciones Revolucionarias de Masa: 이하 ORM), 지방 권력, 게릴라 동조자로 보이는 난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섬멸대상에서 ORV란 주로 과테말라 북서부 고원지대에서 활동중이던 게릴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ORM이란 과테말라 전역에서 무장 폭동을 선동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카톨릭 교회와 노동조합, 결사체(association)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의 섬멸대상 설정에 의거해 국가발전을 저해한다고 의심되는 수많은 종교계 인사와 노동조합원,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었다. 군부의 특수부대 요원들은 ‘해방신학’을 신봉하고 있던 카톨릭 사제들과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노조지도부들을 납치 감금하여 살해하였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은 현재까지도 실종자로 남아 있다.

또한 빅토리아 82는 반정부 인사들의 제거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섬멸 대상은 무장 게릴라 세력이었다. 리오스 몬트 정권 이전에도 무장 게릴라에 대한 토벌은 계속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빅토리아 82는 이전의 토벌 작전과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

6) 빅토리아 82 작전 계획의 원본은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 대학의 ‘National Security Archive’는 빅토리아 82 작전 문서의 복사본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http://www2.gwu.edu/~nsarchiv/index.html>).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토리아 82의 복사본이나 이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 등을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였다.

었다. 그것은 바로 군사 안보 작전과 심리전, 대민지원 등을 활용하여 반군 게릴라를 민간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동시에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빅토리아 82 작전은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을 설정하였다.

- a) 민간인 보호
- b) 지방 게릴라 동조자(Fuerzas Irregulares Locales, 이하 FIL) 100,000여 명의 전향. 하지만 이들이 계속 저항할 경우 섬멸을 목표로 함
- c) 지방 비밀 조직(Comités Clandestinos Locales, 이하 CCL)과 게릴라 부대(Unidades Militares Permanentes, 이하 UMP)의 섬멸

위 기본 전략에 의거해 본다면, 빅토리아 82는 게릴라 활동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섬멸 작전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빅토리아 82는 리오스 몬트 이전 정부에서 실행하던 대게릴라 작전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전과 대민지원의 포함이었다. 이것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게릴라와 민간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선별적 토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sup>7)</sup> 리오스 몬트 정권은 대게릴라 작전에서의 중요성이 영토를 점령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았다(Letona 1989: 19). 이러한 명제에 의거해 빅토리아 82는 게릴라 혹은 동조자로 활동했던 이들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으며, 게릴라를 섬멸한 이후에도 군부대가 일정기간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주민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sup>8)</sup>

이처럼 대게릴라 군사작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리오스 몬트 집권 이후부터 역대 파테말라 정부의 대게릴라 전략이 장기적 관점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비판

---

7) 실제로 리오스 몬트는 1982년 7월 첫째 주에 소집된 빅토리아 82 참가 군 지휘관들의 모임에서 대게릴라 섬멸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는 경우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DIA, Additional Information on Operations 'Plan 빅토리아 82', July 30, 1982. [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425/docs/6-820730%20DIA%20Additional%20Information%20on%20Operations%20Plan%20Victoria%2082'.pdf](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425/docs/6-820730%20DIA%20Additional%20Information%20on%20Operations%20Plan%20Victoria%2082), 참조, 검색일 2013. 7. 6)

8) 리오스 몬트 집권 당시 군부는 게릴라 활동 의심 지역을 100% 초토화하는 루카스 가르시아 휘하 지휘관을 '모사꾼'(tacticians)이라고 칭한 반면에, 자신들은 '전략가'(strategists)로 차별화 하였다.

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오스 몬트 군사정권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루카스 가르시아의 대게릴라 전술을 비판하면서, 게릴라 활동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섬멸만이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대게릴라 전술이란 100% 섬멸이 아니라 30%의 섬멸과 70%의 재교육(re-educating) 및 생존(surviving)이 필요하다고 하였다(Duyos 2011: 8). 즉 빅토리아 82는 ‘나름대로’ 대게릴라 작전에서 한 차원 다른 전술을 지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차별성의 암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빅토리아 82 작전의 운용은 일반적인 초토화 작전(scorched earth)과 크게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아래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리오스 몬트 집권 이래 게릴라 진압을 명분으로 한 정부군의 폭력 행위는 단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빅토리아 82 작전은 그 실행에 있어서 산간 지역 마을을 게릴라의 근거지로 지목하여 철저히 파괴하였고, 이 마을의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 마을이었다. 특히 빅토리아 82의 기본 전략에서 지목하였던 FIL과 CCL은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마야 원주민들이거나 공동체의 대표들이었다. 이들은 게릴라와 민간인을 철저히 분리한다는 빅토리아 82 작전의 기본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게릴라 세력으로 취급받아 잔혹한 토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표 2> 과테말라 내전 기간 중 발생한 폭력 행위(Gonzalo 2000: 61)

대통령	집권기간	정부군에 의한 폭력	게릴라에 의한 폭력	알 수 없음	총계
Peralta Azurdia	1963. 4 - 1966. 7	3	0	0	3
Méndez Montenegro	1966. 7 - 1970. 6	4	0	0	4
Arana Osario	1970. 7 - 1974. 6	2	1	0	3
Laugerud García	1974. 7 - 1978. 6	4	1	0	5
Lucas García	1978. 7 - 1982. 3. 23	507	20	11	538
Ríos Montt	1982. 3. 23 - 1983. 8. 7	413	21	8	442
Mejía Victores	1983. 8. 8 - 1986. 1. 13	70	0	1	71
Cerezo Arévalo	1986. 1. 14 - 1991. 1	14	1	0	15
Serrano Elías	1991. 1 - 1993. 5	3	0	0	3
Ramiro de León	1993. 5 - 1996. 1. 6	2	0	0	2
Arzú Irigoyen	1996. 1. 7 -2000. 1. 14	1	0	0	1
시기 불명		23	2	0	25
총계		1046	46	20	1112

당시 산간지역에 거주하던 마야 원주민들 중 많은 수가 수년 간 케릴라와 빈번하게 조우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야 원주민들은 정부군을 상대로 한 적대행위나 무장투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야 원주민에 대한 광폭적인 토벌이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군부 내부에 팽배해 있던 ‘반 원주민’ 담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부는 빅토리아 82 작전 문서에서 이미 마야 원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고원지대에 위치한 마야 원주민들은 반역의 기치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부족과 극심한 가난 타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부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토화 대상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은 각치켈(Kakchiquel), 케끄치(Kekchíí), 끼체(Quiché), 익실(Ixil), 맘1(Mam1), 맘2(Mam2), 뜨수투힐(Tzutujil), 라비날 아치(Rabinal Achi)... 등의 마야 원주민들이다.”(빅토리아 82: 29-35; Duyos 2011: 1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내용은 빅토리아 82 작전의 본격적 실행 이전부터 마야 원주민에 대한 지위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기부터 마야 원주민은 보호받거나 케릴라와 분리되어야 할 민간인이 아니라 ‘적’일 뿐이었다.

## 2. 소피아 작전<sup>9)</sup>

빅토리아 82 작전이 PNSD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거시적 측면의 소요진압 작전이었다면,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마야 원주민에 대한 섬멸만을 목표로 한 것이 소피아 작전이었다. 1982년 리오스 몬트 정권하에서 구상된 소피아

9) 소피아 작전과 관련한 군사문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National Security Archive’의 ‘Operation Sofia: Documenting Genocide in Guatemala’에 수록된 작전문서 원문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297/> 참조, 검색일 2011. 5. 12) 소피아 작전 문서는 총 35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시작 초기명령(la orden inicio de lanzar la ofensiva)과 작전 계획(el Plan de Operaciones), 각 부대 간에 교환된 메시지와 통신문, 정기적인 결과 보고(전황보고)에서부터 순찰병이 야전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전기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실행에서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군사 실행 기록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전은 익실 공동체(Ixil Community)내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거주지를 파괴하는 작전으로서, 1982년 7월 16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리오스 몬트 군사정권은 과테말라 전역에 빅토리아 82 작전을 실행하는 동시에, 익실 지역이 역사적으로나 종족 특성상으로 볼 때 일종의 ‘레드존’에 가까워 게릴라의 ‘해방구’로 전락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한 특단의 조치가 소피아 작전이었던 것이다.

익실 공동체는 과테말라 서부 고원지역의 엘 끼체(El Quiché)주에 위치한 산타마리아 네바흐(Santa Maria Nebaj), 산후안 꼬찰(San Juan Cotzal), 산 가스파르 차홀(San Gaspar Chajul) 마을을 가리키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익실 마야 원주민의 후손들이다. 위 세 지역은 지도상에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익실 트라이앵글’(Ixil Triangle)이라고도 부른다. 이 지역은 꾸추 마타네스 산맥(Sierra de los Cuchumatanes)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고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에 힘입어 1970년대부터 과테말라 무장게릴라 단체인 EGP(Ejército Guerrillero de los Pobres)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익실 공동체는 근대국민국가 체제에 융합되지 않은 채 독립적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마치 게릴라의 근거지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과테말라 군부는 1981년에 이미 ‘Operation Ixil’이라는 군사교본을 만들어 이 지역에 대한 위험성을 각 군부대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소피아 작전은 모두 4단계로 실시되었다. 1단계는 1982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서, 카이빌레(Kaibile)<sup>10)</sup>와 특수부대로 구성된 군대가 작전 지역을 고립화 하는 단계였다. 이후 8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2단계 작전에서는 공격 지역에 폭격을 포함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 포위망을 더욱 강고하게 구축하였다. 3단계(8월 9일부터 19일까지)는 2개 중대가 폭격으로 인해 산간에서 피난해 계곡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기간이었다. 4단계는 공식적인 소피아 작전이 끝난 이후의 시기로서, 1983년 1월까지 원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 진행되었다. 이 단계는 1983년에 기획된 피르메사 83과 결합되어 더욱 강화되었으며,

10) 내전 당시 과테말라 정부군 소속으로 활동한 특수부대를 일컫는다.

잔혹 행위가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1987년이였다. REMHI(Proyecto Interdiocesano de Recuperación de la Memoria Historica) 보고서<sup>11)</sup>에 의하면 이 시기 익실 거주지에서 사살된 원주민은 모두 8,857명이었는데, 이중 5,252명은 군대에 의해 학살되었고 2,270명은 민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ODHAG 1998).

소피아 작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빅토리아 82에서 규정한 ‘적으로서의 마야 원주민’을 완전 섬멸하는데 있었으며, 특히 익실 공동체라는 제한된 지역을 목표로 삼아 특정 종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실시한 사례이다. 이러한 제노사이드의 의도는 소피아 작전 기록에서 희생자들이 사람이 아닌 단지 군사행동의 목표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전 기록 문서에서 모든 희생자들은 개인이나 사람, 성별, 혹은 (마야)원주민 등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사물(item)로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chocolates’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어린이들을 chocolates 로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구리빛 피부색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은유적 용어’는 원주민들이 군대가 지정한 곳으로 소개(疏開)되거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라지게 된다. 이때부터 원주민들은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people)으로 취급받으며 정상적인 단어로 기록되게 된다.

“2 chocolates were eliminated”...

“an item in plain clothes was eliminated”...

“3 orphaned children were evacuated”...

“female and male children, and old people were evacuated”...(Arzu 2011: 6).

또한 소피아 작전에서는 단지 인명 살상만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마을을

---

11) REMHI 보고서는 유엔이 중재한 CEH와 달리 과테말라 카톨릭 교구에서 1960년부터 1996년까지 발생한 학살 및 인권침해 상황 등을 담아 발행한 것이다. 과테말라 내전 당시 마야 원주민 마을에서 활동하던 많은 카톨릭 사제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진상조사와 피해 상황 파악을 과테말라 카톨릭 교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파괴하거나 생존자들이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황폐화하는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피아 작전 이후 동일지역에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 3. 피르메사 83

과테말라 군부는 빅토리아 82와 소피아 작전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과테말라 북서부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상당수의 ‘소요사태’를 진압하였고, 대게릴라 작전에서 일종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군부는 PNSD에 의거한 과테말라의 ‘계속적인 발전’을 원하였기에, 빅토리아 82와 소피아 작전의 성과에 근거한 추가 계획이 필요하였다. 피르메사 83은 이와 같은 배경에 의거해 완성된 계획으로서, ‘Roof, Tortillas and Jobs’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어졌다.

피르메사 83 작전은 빅토리아 82의 성공에 기초한 성과물들을 과테말라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군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과테말라 전 지역의 정치 행정조직에 군부대가 파견되어 성과물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당시 군부는 과테말라 전 지역의 인구와 중요도, 안보의 단계, 발전 정도, 게릴라에 대한 주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 군부대를 파견하였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향후 어떤 민간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위와 같은 체계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에 파견된 군부대의 임무에는 파괴된 마을의 재건 및 식량원조 등의 대민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보다는 군사정보적 임무가 많았다. 특히 파견부대들은 대게릴라 작전에서 발생한 이주자 및 난민을 관리하였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통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파견부대의 임무에는 민병대(Patrullas de Autodefensa Civil, 이하 PAC)의 조직과 분쟁지역의 인구 및 물자를 통제하고, 게릴라 혹은 그들과 대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동조자들에 대한 심리전 수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의 임무들은 단순히 나열해보면 다양한 범주의 영역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 실제 이 임무들이 시행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마야 원주민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결국 피르메사 83 작전은 리오스 몬트 군사정권이 빅토리아 82 작전을 통해 확립한 대게릴

라 진압 원칙을 과테말라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었으며, 그 대상의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들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테말라 군부가 실시한 특이한 전략 중의 하나가 모델 빌리지(Model Village)의 건설이었다. 본디 모델 빌리지는 대게릴라 전술의 일종으로 발생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전략촌’(Strategic hamlet)<sup>12)</sup>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주로 게릴라 분쟁지역에서 정부군이 효과적인 주민관리를 위해 기존의 마을을 모두 폐쇄하고 새롭게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다. 과테말라에서는 1983년 12월 네바흐의 아쿨(Acul)에 처음으로 모델 빌리지가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1983년과 1984년 사이에 약 24개의 모델 빌리지가 건립되면서 약 5-6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었다. 모델 빌리지에 들어온 이들은 대부분 마야 원주민들로서, 정부군의 초토화 작전 당시 포로가 되거나 산간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이들이 대부분이었다(McKinnon 2010: 129-131).

모델 빌리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게릴라 활동 지역에 살던 마야 원주민들을 군부의 감시 하에 통제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또한 분쟁지역 내에서 게릴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없애므로써, 반군 게릴라의 세력을 약화하는 추가적 기능을 가져온다. 하지만 과테말라의 모델 빌리지는 단지 이 기능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과테말라 모델 빌리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마야 원주민들을 국가로 통합(integrate them into the nation)하는 것이었다. 모델 빌리지의 마야 원주민들은 과테말라 국기가 게양된 곳에서 군부의 대게릴라 방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산간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대신 국가사회 속에서 어떠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것은 엄연히 ‘라디노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피아 작전이 운용되었던 익실

12) 1968년 3월 16일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중부 쩡아이(Quang Ngai)성 선미(Son My) 마을에서 미군 23사단 11여단 20연대 1대대 소속의 찰리 중대가 게릴라를 토벌한다는 미명하에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주민 504명을 학살하였다. 일명 ‘미라이(My Lai)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전쟁의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라이 사건의 핵심은 미군이 운영하는 전략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략촌을 벗어난 이들에 민간인에 대해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광폭한 폭력이 가해진 결과이다.

에서는 모델 빌리지를 ‘새로운 익실’(New Ixil)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모델 빌리지와 더불어 피르메사 83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PAC의 운용이었다. PAC의 근본 목적은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방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나, 1981년 말 가르시아 대통령 시기부터 마야 원주민 공동체를 게릴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PAC의 총 규모는 피르메사 83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던 1983년과 1984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1984년 말에는 약 1,300,000명에 이르게 되었다(McKinnon 2010: 138). 이것은 피르메사 83 작전에 의거해 파견된 군부대가 마야 원주민 마을 및 모델 빌리지에 적극적으로 PAC를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PAC는 18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조직하였으나, 실제로는 8세부터 70세까지의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군부대를 대신해 대게릴라 전술에 운용되었으며, PAC 가입에 불응하거나 게릴라 동조 세력으로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고문 및 살인을 일삼았다. 현재까지 상당수 마야 원주민들이 과테말라 내전 당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해 원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의 결과로 믿고 있는 것은 바로 PAC의 폭력이 극심했기 때문이다.<sup>13)</sup> 반면에 과테말라 군부는 PAC를 조직함으로써 마야 공동체 내부에 자체적인 반 게릴라 부대를 운용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근대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를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과테말라 군부는 초토화 작전을 통해 원주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또한 이들을 교화하여 ‘라디노’로 만들기 위한 의도도 동시에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테말라 제노사이드에서의 이중적 모습은 피르메사 83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델 빌리지와 민병대의 운용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 사례들이다.

13) 곤사로(Gonzalo 2010: 62)에 의하면, 과테말라 내전 당시 학살의 가해 주체로 과테말라 정부군이 88.4%의 책임을 지고 있고 PAC가 23.38%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PAC의 학살 가해 비율은 과테말라 정부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 V. 결론과 향후 과제

제노사이드와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는 과테말라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와 같이 에스닉 마이너리티와 소수 지배계급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인종주의가 중요한 사회구조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근대국민국가의 기능과도 연결되는데, 푸코(Foucault, Michel J, 1992)는 인종주의가 근대국민국가 권력의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인종주의가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을 죽이거나 절멸하는 권력을 가지며, 가장 추악한 국가들이 가장 인종주의적 행태를 지닌다고 비판하였다.

근대국민국가의 기능 속에서 마야 원주민의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2년 이후 과테말라에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군사 작전들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과테말라의 군사작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당수 마야 원주민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한 후 특정 인종에 대한 선별적 학살을 중심으로 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는 타지역에서 발생한 그것과 비교할 때 약간의 부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과테말라의 마야 원주민 제노사이드가 홀로코스트와 같이 특정 인종 범주를 완전히 ‘청소’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근대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원주민(인디오)의 국민으로의 전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내전 시기 발생한 마야 원주민 제노사이드는 과테말라 사회에서 ‘라디노화’라는 보다 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행태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현대적 의미에서의 제노사이드가 ‘인종청소’라는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결국 근대국민국가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목표와 결코 떼놓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내전이 종식된 이후 과테말라의 사회 각 계 각 층에서는 군부독재 정권 당시 자행되었던 마야 원주민에 대한 제노사이드가 범죄라는데 공감할 수 있었다. 이에 1996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과테말라에서는 원주민의 인권의

수용하고 국가의 다언어, 다문화, 다인종적 특성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사항을 담고 추진되었던 1999년 개헌안은 과테말라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표면적으로는 마야 원주민에 대한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노용석 2012: 404). 전 세계인들은 마야 원주민 출신으로서 199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리고베르타 멘추(Rigoberta Menchú Tum)를 상기하며 마야 원주민 문제를 떠올리지만, 현재까지 과테말라 사회에서 이를 수용하고 원주민 문제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내부의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내전 당시 발생한 제노사이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 국가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과테말라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을 제노사이드 방지라는 측면에서 좀 더 깊게 고찰한다면,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에 대한 제노사이드 논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 참고 문헌

- 자료 -

Plan de Campaña “Firmeza83”

[http://www.plazapublica.com.gt/sites/default/files/plan\\_de\\_campana\\_firmeza\\_83\\_parte\\_1.pdf](http://www.plazapublica.com.gt/sites/default/files/plan_de_campana_firmeza_83_parte_1.pdf), 검색일: 2012. 5. 12)

Plan Operaciones Sofia

([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297/Operation\\_Sofia\\_hi.pdf](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297/Operation_Sofia_hi.pdf), 검색일: 2012. 5. 12)

- 논문 및 서적 -

노용석. 「과테말라 시민사회의 과거청산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 『스페인어문학』 63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2.

- 젠 니퍼스, 중남미지역원 번역팀. 『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 서울: 이담. 2012.
- 최진숙. 「과테말라 마야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형성: 코드 전환에 의한 언어적 편견의 재생산」, 『한국문화인류학』 38-2. pp. 3-28.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a.
- \_\_\_\_\_. 「인종화와 종족화 사이의 이중 구속-과테말라 마야 인디언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11-2. pp. 143-1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5b.
- \_\_\_\_\_. 「과테말라에서의 “인종”(race)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라틴아메리카 연구』 20-3.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7.
- Arzu, M. C. “Racism and Genocide -The Guatemalan Genocide in the light of Operation Sofia: An Interpretation and a Reflection”. 2011.([http://www.ccoo.es/comunes/recursos/1/doc83735\\_Operation\\_Sofia\\_\(Taking\\_the\\_fishes\\_water\\_away\).pdf](http://www.ccoo.es/comunes/recursos/1/doc83735_Operation_Sofia_(Taking_the_fishes_water_away).pdf), 검색일: 2012. 5. 12)
- Booth, John A., Wade, Christine J., Walker, Thomas W. *Understanding Central America*. Philadelphia: Westview Press. 2010.
- Chalk, Frank & Jonassohn, Kurt.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Genocide: Analyses and Case Studies*. Yale University Press. 1990.
- Duyos, Sofia. “Rios Montt's Tyranny: Government's Three Branches in the Service of Genocide.” 2011. [http://www.ccoo.es/comunes/recursos/1/doc83735\\_Operation\\_Sofia\\_\(Taking\\_the\\_fishes\\_water\\_away\).pdf](http://www.ccoo.es/comunes/recursos/1/doc83735_Operation_Sofia_(Taking_the_fishes_water_away).pdf), 검색일: 2012. 5. 22)
- Esparza, Marcia(ed). *State Violence and Genocide in Latin America : The Cold War Years*. New York: Routledge. 2010.
- Foucault, Michel J. "The State Must be Defended" in Bernard Bruneteau. 2006. *The Century of Genocide, Violence, Massacres and Genocidal Processes from Armenia to Rwanda*. 1992.
- Gonzalo, S. M., *Masacres en Guatemala -Los Gritos de un Pueblo Entero-*. Guatemala City: GAM. 2000.
- Grandin, Greg. *The Blood of Guatemala -A History of Race and N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The Last Colonial Massac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Kuper, Leo.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Penguin Books. 1981.
- Lamkin, Rafael.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44.
- Levene, Mark. *Genocide in the Age of the Nation-State, Volume 1: The Meaning of Genocide*. New York: I.B.Tauris. 2005.
- Letona, LTC Roberto. "Guatemalan Counterinsurgenc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1989. (<http://www.dtic.mil/dtic/tr/fulltext/u2/a209506.pdf>, 검색일 2013. 7. 4)
- McKinnon, Devon. "Nation-Building in the Guatemalan Countryside." History M. A. Thesis. Trent University. 2010.
- Oficina de Derechos Humanos del Arzobispado de Guatemala(ODHAG). *Nunca más III : El Entorno Histórico*. Guatemala City. 1998.
- Rothenberg, Daniel. *Memory of Silence: the Guatemalan Truth Commission Repor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 Sanford, Victoria. *Buried Secrets: Truth and Human Rights in Guatemal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ABSTRACT

## The Study of the Genocide in Guatemala

Noh, Yongseok

The Guatemalan government and guerrilla forces(the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o, URNG) signed peace accord in 1996, and ended civil conflict(1960-1996). The bloodiest governments of the 36-year-long armed conflict were those of Lucas García, Ríos Montt and Mejía Víctores, between 1978 and 1983. The war that Guatemala underwent resulted in more than 200,000 casualties, more than 83% of them Mayan,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CEH(Comision para de Esclarecimiento Historico). ‘Victoria 82’ and ‘Opreation Sofia’ were the strategy of military dictatorship to destroy indigenous Mayan communities.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the Guatemalan state perpetrated a genocide against the indigenous population using racism to strengthening modern nation-state and this was because, historically and structurally, it possessed, in its intrinsic nature the repressive, ideological and legal apparatus. To distinguish Maya from ladino is often linked to cultur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nd a system of racial ranking. Military dictatorship used the system of racial ranking to exterminate indigenous populations.

---

### Key Words

과테말라, 제노사이드, 빅토리아 82, 소피아 작전, 라디노, 마야  
Guatemala, genocide, Victoria 82, Opreation sofia, ladino, Maya

논문접수일: 2014. 01. 25

심사완료일: 2014. 02. 28

게재확정일: 2014. 03. 12